

# 새정치, 사실상 조기 총선체제 돌입

### 총선실무기획단 첫 회의...총선정책기획단도 내달 출범

### 조기선대위·총선거획단 구성시 계파갈등 재연 우려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 대비를 위한 실무기구를 잇따라 출범시키며 사실상 조기 총선체제에 들어갔다.

안규백 전라북도본부장은 30일 “총선실무기획단이 구성돼 최근 첫 회의를 했다”며 “총선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일정을 짜는 등 실무 준비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실무기획단은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을 단장으로, 총선 관련 실무부처 국장급 당직자들이 참여해 꾸려졌으며, 오는 10월께 총선 전략을 총괄할 총선거획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각종 업무 계획과 관련 기초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정책과 공약을 총괄할 총선정책기획단도 다음달 출범시킨다.

총선정책기획단은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을 각각 단장·부단장으로 하고, 정책위 부위원장과 정책조정위원장,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 총선 핵심 기본공약과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총선정책기획단은 오는 12월 중 핵심 중앙공약을 위주로 1차로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내년 1월에는 지역별 공약까지 확정해 2차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총선 준비를 서두르는 것은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나면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전통적으로 야당의 무대인 국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경우 총선까지 여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당내 계파갈등 탓에 일사불란한 총선체제를 꾸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조기 선대위 구성 문제를 두고 주류-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예상돼 총선거획단이 예정대로 10월께 출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조기 선대위든 총선거획단이든 공천 등 선거 핵심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의 구성을 두고 계파 간 정면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을 대비한 당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놓고 당내 계파 간 갈등이 불거

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9월20일까지 구성해야 한다”며 “평가위원장 문제도 문제인 대표가 열어 놓고 후보를 구하고, 여러분에게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여야 지도부가 만나 일괄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좋은 이야기”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구를 축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줄여선 안 된다는 당론을 재확인하는 등 정쟁사태에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윤석 의원, 주승용 최고위원직 복귀 ‘물밑중재’ 눈길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난 24일 사퇴선언을 한 지 108일 만에 최고위원직에 복귀하기까지 이윤석(사진) 조직본부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또 지난 23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문재인 대표와 주 최고위원과 오전에도 배석해 최고위원직 복귀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이 본부장은 “(두 사람이) 정시간 만나 얘기하면서 당 화합과 통합, 계파 패권 정치 청산 등을 논의했고 서로 공감했다”며 “그동안 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해 당이 화합의 길로 가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평가라운지

### 김승남, 경선 탈락 후보 선거 출마 금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의 어느 지역에서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선 탈락 후보에 대해 동일 선거구에서만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할 뿐, 탈락 후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은 용인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법은 광역의원 경선 탈락 후보가 기초의원으로서 선거 단위를 바꿔 재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경선탈락자가 해당 선거에서 어떤 후보로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김 의원은 “경선에 불복하고 탈락 후 재출마하는 일은 당내 경선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당내경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개호, 4개군 홍수재해예방 교부금 20억 확보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구인 담양·함평·영광·장성 4개군 5억원씩 모두 2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과 5월에도 각 30억, 21억원씩 총 5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들 모두 재원 마련이 안 돼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사고 위험을 감수해왔는데 이번 재해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이런 걱정을 맡김 없이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재해예방 시급성을 감안해 하루빨리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야, ‘총선필승’ 건배사 정중섭 장관 탄핵안 발의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8일 새누리당 의원연설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건배사의) 위법성을 국민에 알

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선거의 주무장관인 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한편, 정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심으로 송수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유념하겠다”고 사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30일 오후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김성태 간사(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간사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협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4대 개혁” 野 “4생 국회”...총선 전초전

### 내일부터 정기국회 개원...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논란 예고

여야가 다음달 1일부터 정기국회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 2기’를 시작한 박근혜정부가 제19대 국회에서 핵심 국정과제를 실천할 마지막 기회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간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8일 여야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사를 위한 소위를 설치하는 데 이견을 보이면서 8월 임시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상황은 이미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2016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과 현 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강력하게 추진하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총선을 앞둔 여야간 기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3대 법안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30일

“정기국회에서 노동시장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개막과 동시에 ‘정기국회 상황실’을 가동하고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살리기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예조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수권 능력을 증명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원내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4생(生)

국회’로 규정했다. ‘4생’은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을 의미하는 것을 물론, ‘사즉생’의 각오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이라고 원내지도부는 설명했다.

또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의 철저한 검증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벌여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

여야는 오는 9월 10~23일, 10월 1~8일로 나눠 개최하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장과 방패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家)의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새정치연합은 벌써 기업 총수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재벌 개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태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회원전용신용대출

#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